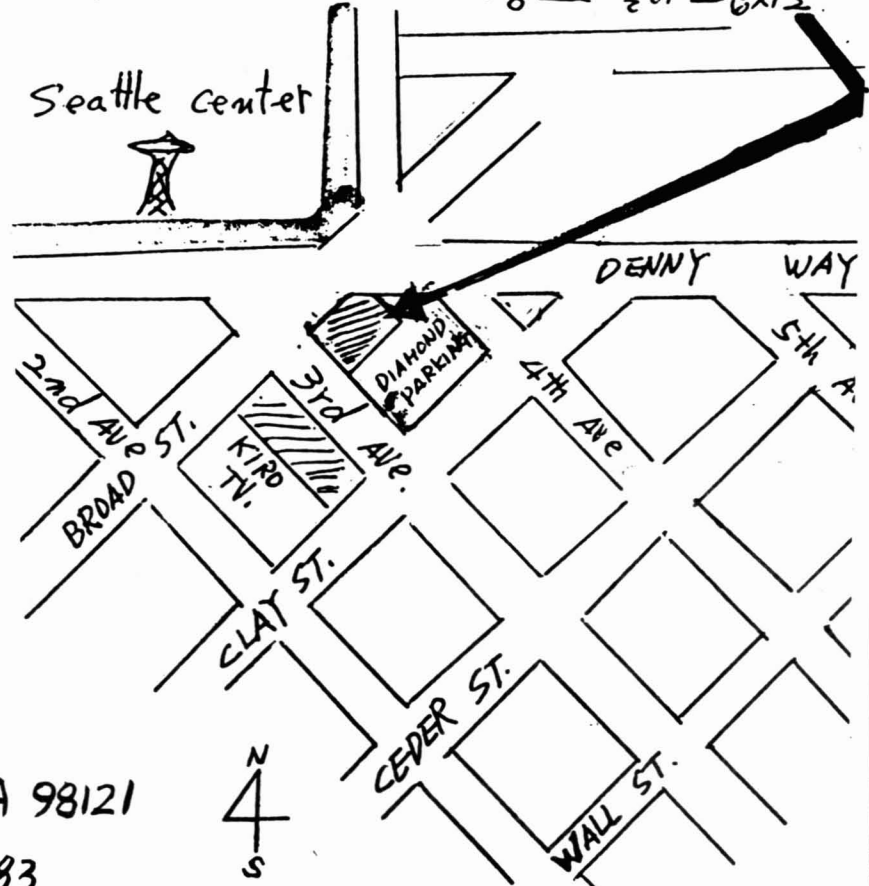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계리사 이규영
 주소: 307 Broad st Seattle WA 98121
 전화: 623-4181, 4182, 4183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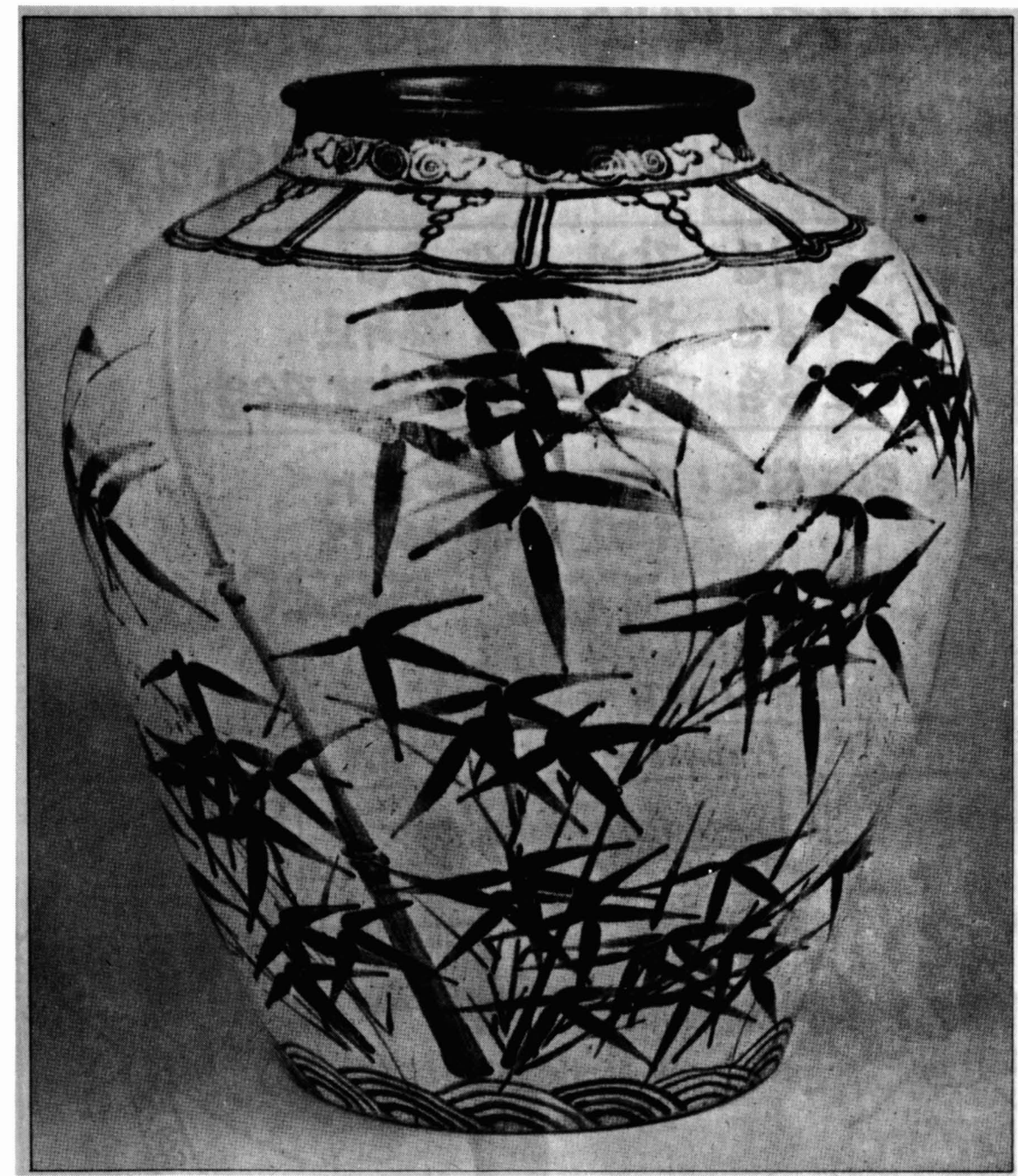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S. S. Kim, Editor

VOL.9 No.2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 1980



白磁鐵繪梅竹文壺
 White Porcelain Jar Decorated With Iron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767-7934, 767-793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1967

씨애틀 S.W. 지역
화이트 센터 중심가에 위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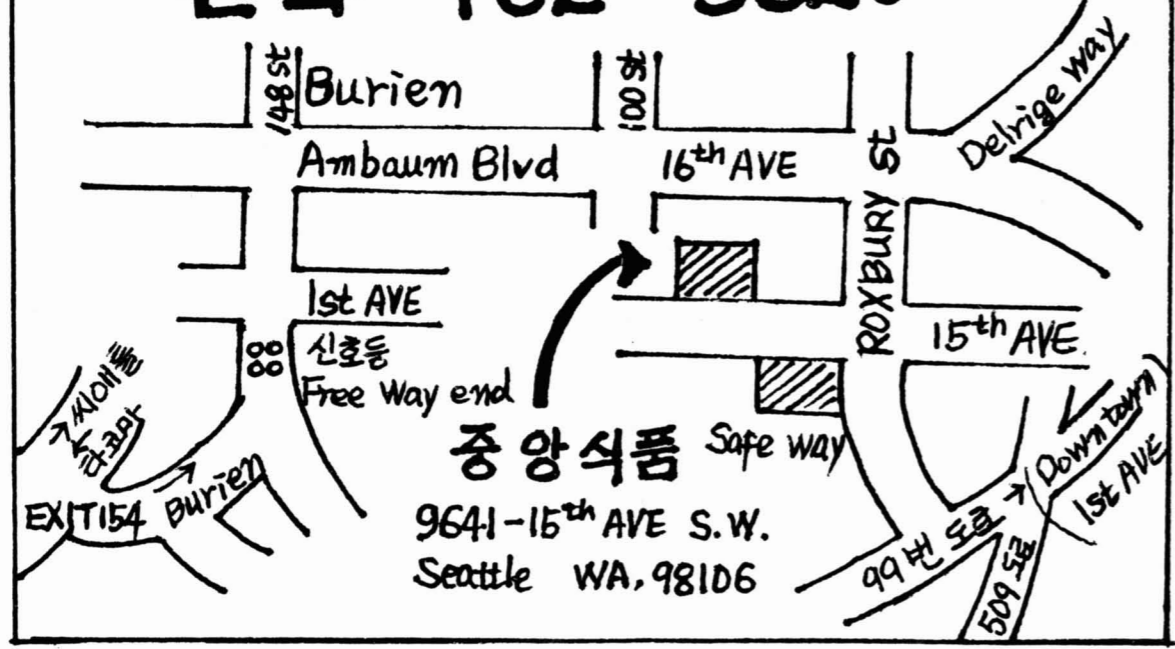
중앙 식품

*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한국인의 정.....,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갈비 연삼 웅담
한국생선 곱창 녹용 경육고
선물용품 기타 생필품 일체 직수입

* 영업시간: 평일 10AM~8PM
일요일 10AM~6PM

전화 762-5620



그랜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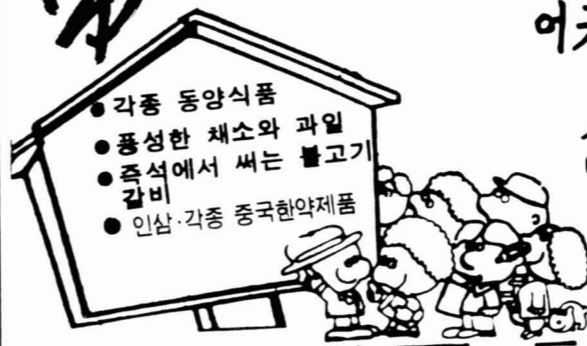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육의 맛을 성실히 전해 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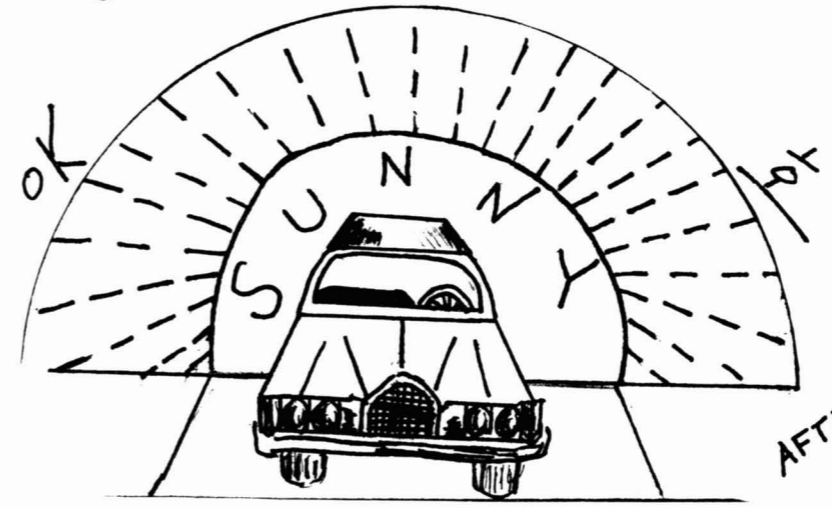


감사 합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인삼코너



SUNNY'S BODY



이모 지모 여러 형태로 차고치기를 주저 하십니까?
한번 왕림해 주셔서 SUNNY 감.을 찾아 주시면
즉시 즉결 어려운 문제점을 사막의 냉수처럼
탁 트이는 시원함을 약속 드립니다.
(자동차 바디수리 10x10%)
(자동차 페인트 10x10%)

TEL: DAY 725-5708
NIGHT 784-5407
주소: 5716 RAINIER AVES
SEATTLE WA

부동산

**SHERWOOD N
ROBERTS INC**

OK J. FRY (옥자 FRY)

취급 종목: 콘도 미니홈. 다운 하우스. 개인 주택

전화: (206) 682-2330

455-4822

사무실

**주소: 520 112th AVE N.E SUITE 120
BELLEVUE. WA 98005**

집 (전화: (206) 641-2735)

C & E 용접학원

동양계 유일의 워싱턴 주정부 공인 직업학교.

최신 기계 시설과 유능한 한인 강사진으로 단기간 수강 가능.

Win Program 웹페이지를 막는본은 주정부 재정지원으로 무료 수강

졸업후 취업 안내 구직 신청등 무료 봉사.

저렴한 수강료.수시 입학 가능

3부제 수강으로 마지막 종사자도 수강 가능

본학원은 78년 11월 개원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100여명의
졸업자를 배출, 고소득 용접사로 취업시켰습니다. 따라서 "스틱" 용접기,

MIG-ALUMINUM과 Tig 용접기등 최신 기계를 정비하여 직업학교로서 명실

공히 태내외에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교민과 새로운 이민자의
구직 상담원으로써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 (206) 763-9190

주소: C & E WELDING TRADE SCHOOL

7200 Delridge Way S.W.

Seattle Wa 98106

244-8449

·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 회 ·

· 초대 말씀 ·

서기 1980년 2월

중이옵고, 먼저 대망의 80년대를 맞이하여 커다란 소원하시든 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에서는 제 61회 3.1절 기념행사 및 부속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니 바쁘신 줄로 아옵시다만 가절하시지 마옵고 온민족의
성화였던 61년전의 기미년 3월 1일을 회상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하여
주시면 더욱 더 빛거리라 믿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 시: 1980년 3월 1일(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씨애틀 No 4174 햄밀런 주니어 하이스쿨(약도 참조)

행사내용: 1) 3.1절 기념행사.

2) 영화 감상회

가) 한국 최우수극영화.

제목: "집념" (79년도 한국 대중상 수상)

배우진: 이순재, 김장수, 박병호 등 호화캐스트.

종류: 장편사극 (상영시간 2시간 30분)

기타: 종전연의, 씨네마스콕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자막해설로
미국어이나 한국말 해독이 어려운 자들에게도 불편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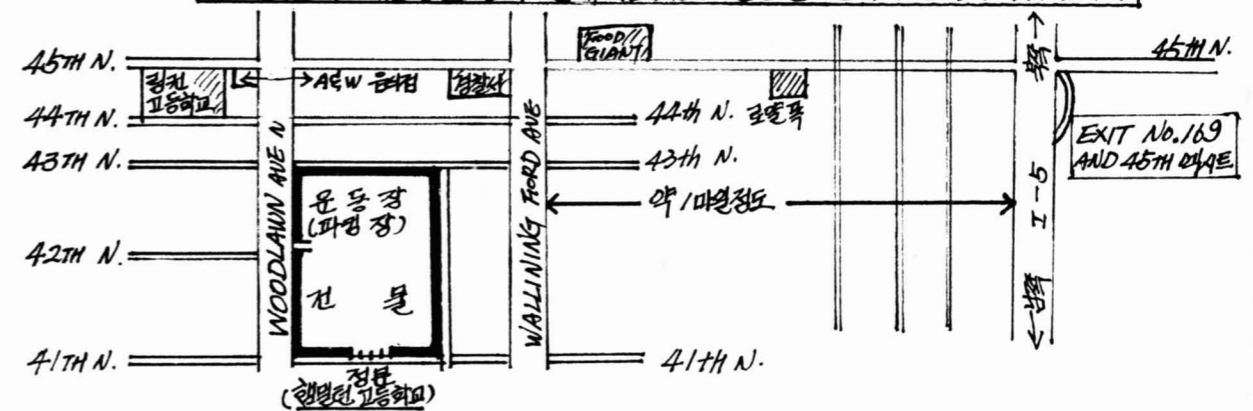
나) 카터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록영화: 상영시간 40분.

3) 경품추첨.

가) 자격: 만 5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 상품: 1등(T.V) 2등, 3등 (14개 품목의 푸짐한 상품)

***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일체 무료이며 간단한 선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씨애틀 와싱턴주 한인 회 회장 정철식
이사장 엄명보 근배

삼일운동 40주년 기념 특집



이분은 최용필 목사님

서울에서 주동자 체포예란 그쳤으나 남포 지엄해가는 독립단체 소리가 천지에 울리자 발표문을 내렸다. 당시 조선에는 1개 사단의 영토와 2만 이상의 헌병, 그리고 많은

경찰이 있어서 전국 500개소에 분산하여

명화적인 시위를 연인 공노할 무차별적 학살로 날려 버릴까 했다. 선천에서 3월 1일에 첫회생자났고 그 뒤를 이어 전국 각지에서 5월 30일 까지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수 15,961명 체포된자 46,948명 고위 관은 47개소 학교 파손수 22 명 파손수 715채에 이른다.

가장 심한 피해를 기독교인들이 입었다. 개거된자중 가장 많은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임백포서 만세 시위가 막바지에 이른 4월 15일 2시경 아미타 라는 일본군 중위가 이끈 일단의 군인들은 30여명 고인들을 교회에 모으고 문을 잠근후 집중 사격을 하여 모두 죽이고 교회당을 불질렀다. 또 체포된자들은 혹독한 고문을 겪어야 했다. 그 중 가장 심한 여자 유관순의 경우이다. 이와 학당을 다니던 16세 소녀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 버려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4월 2일 아내(남매) 장남 1만여명중과 함께 시위하여 삼 심외에 올라가 언설하다가 헌병의 총칼에 찔려 숨어지후 체포되어 금주에서 7년형을 지내다가 서대문 영부수에 이감 되었다. 어전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잔인한 경찰은 그녀의 국부에게 구호를 불고 몸을 틀어 참혹하게 죽이고 말았다. 정주에 이승훈은 1921년 3월 1일 3.1 운동 2주년 기념만세를 주동하여 1,700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이승훈은 애절한 포탄위에 그 몸이 굴러가 피를 흘리는 악형을 받았던 것이다. 일제 당국의 기록에 의하면 3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재판 받은 피고수가 17,990명, 형을 진자가 5,156명이었다.

3.1 운동은 결국 실패했으나 그 결과는 지대했다. 그 하나가 상해의 망명 임시 정부 수립이고 둘째가 일본으로 하여금 무단 정치를 포기 하고 본국 정치를 실시케 했다. 어느 정도 언론 집회,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 셋째가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민족의 통일 정신의

표현이었다. 본업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이었는데 민족의 운명이 생사간 갈라남이전박한시기에는 본업을 초월하여 하나로 돌아가는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3.1 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전에 못 보았던 용기와 통일과 평화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 오늘 3.1 건 기념일에 있어서 민족 독립을 위하여 희생당한 그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입대 정신적 과감을 이트켜 3.1 정신

으로 돌아가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 정신을 발휘하며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고 위대한 나라를 재건하여 세계적인 사명을 완수하자.

씨애틀 한인 영적교회 담임 목사

1944년 7월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만 4년여의 고향을 떠두고 1978년 독립의 날부로 유전이 되며 미국 대통령 빌슨(Wilson)이 민족 자결 주의를 부르짖으니 온 세계의 약소 민족은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민족은 해외에서 호응하여 입대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드디어 독립운동의 우렁찬 함성은 기미년 3월 1일(1919년) 서울을 외시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져 나왔다. 독립운동을 추진한 중추세력은 국내외에서 모두 입국근태나 있었다. 상해에서는 김구식, 여운경 등이 신한 청년단을 조직하여 김구식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독립을 호소하고 미주에서는 안창호, 이승만 등이 대한국민회와 홍사단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노영, 연백주 역서는 이동희 등이, 동경에서는 조선 YMCA 회관에서 이광수를 대표로 한 유학생들의 조선 청년 독립단이 2월 8일 그 기조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국내외에 이를 천명하여 독립을 호소했다. 이 모든 주동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국내에서는 서울, 평양, 광주 등 곳곳을 중심으로 3.1 운동이 추진 되었다. 서울에서는 손병희, 최린, 등을 중심으로한 천도교측과 함백영, 박희도, 이광성을 중심으로한 기독교측이 추진했고 평양에서는 김선두, 변인서 등이 광주에서는 이승훈, 김병조 등이 핵심되어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문제는 개별적이 아니라 통일이었다. 국내에서 대표를 선출하니 천도교측에서 15인 기독교측에서 16인 불교측에서 2인 합 33인이 손병희를 대표자로 선정했다. 학생들이 3.1 운동의 전위부대였다. 보성전문, 연희전문, 학생들이 중심이되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범교대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중앙 YMCA 관 사 백희도 의 주선으로 기독교와 천도교측이 추진하던 독립운동에 합류하기도했고, 3.1 운동이 퍼지자 언제나 시위행렬의 선두에서 사자처럼 날뛰었다. 전국 각지에 넘쳐있는 기독교인들의 조직 연방과 활동, 산간벽지에서는 서당, 농민들의 봉기, 여성들의 행렬과 등이 3.1 운동을 어느한지방이나 단편적인 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의 운동이 되게 한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에 독립 불고서, 삼일애국은 동양평화 이권서 부회 평화회의 광국 대표에게는 역사적 임무에 대한 구명문을 송달하였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서울과 지방에 전달하기도 했다. 거사일은 3월 1일로 한것은 3일이 일본의 독살로 유포된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니 일본에 한 조 개들이 전국에서 온집합것을 여기에서 2일은 주일이므로 기독교측의 주장으로 7일 오후 2시로 한것이다. 이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하늘 높이 외치며 입대 시위를 이트켰다. 이날 시위 운동에 참가한자 4,50만을 헤아렸으나 단 한건의 폭행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했다. 같은날 평양, 선천, 의주, 원산, 함흥 등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동하여 독립선언과 시위 운동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3월 1일 부터 4월 29일 까지 전국 각지에 이 운동이 계속되었다. 거의 두달 동안 독립운동이 특출한 애국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간벽지 부녀자들 심지어 소학교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이다. 당황한 일제는 첫날은

신장개업

현대식품점

9월 16일 대매출

고된 어려움을 인경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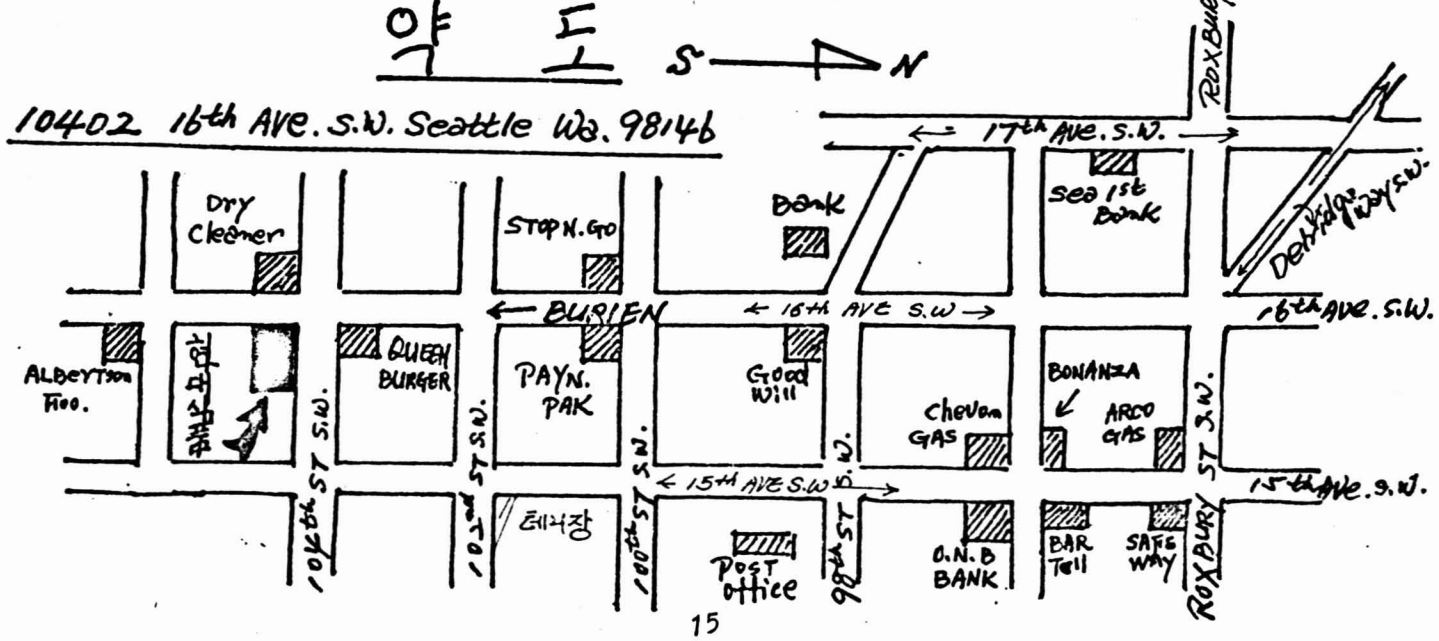
시아틀 S.W 지역 (White Center)에 한국식품점을 신장개업 하였습니다. 고된 어려움의 많은 이음 빛을 시길 하라오며, 저희는 친절과 철저한 봉사로 고된 어려움을 보실것을 약속드립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추천 품목

- 한국식품 • 일본식품 • 중국식품 • 미국식품
- 귀국선물선적대여
- ※ 개업대세일

개업일자 : 1980년 2월 22일
 영업시간 : 9AM ~ 9PM <년휴무휴>
 전 화 : 762-4792 代表: 조진기 배상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소식

Lynnwood 에 자리잡고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Snoqualmie pass 에서 청년회 주회 스키 강습회를 열어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년회 봄 수양회를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MOUNT BAKER 수양관에서 "신앙과 지식"라는 주제를 갖고 수양회를 갖을 것입니다.

그간 지상에 보도된바 있는 (치과 의사 이영주씨) STEVENS

DENTAL CENTER 에서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부머 상대한 개업 축하 파티가 베풀어 졌다.

이날 참석한 인사 가운데는 교회들 중심에서 한인회의 임원 및 이웃 씨애틀의 중견인사들이 다수 참석 개업 축하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의사 이영주씨는 자신의 포부에 찬 집념으로 서로 돕고자하는 참신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믿있는 그의 결심은 앞으로 많은 이웃 고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STEVENS DENTAL CENTER
20728 76th Ave, W
Edmonds, Wa 98020
Tel: 775-3456

한국 당구대 2대를 매도 합니다.

12129 Pacific High Way (파로마) 에 있는 챔피언 당구장(주인 박영식씨) 에서는 한국 당구대 2대를 싸게 매도 하겠다 합니다. 사실 외향이 개선 고포 어머분들의 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화 : 582-2890

한인회 재정 현황

재정부장이 말씀

구분	CETA	한인회비	잔액기금	교육기금	선교회	주 소 주	일반기금	합계
년도			BOND	CHECK	광고료	광고료		
전년도	0	0	9,128	1,641	0	1,340	352	12,461
1월중합계	2,085	365	0	3,436	0	0	525	6,411
누 계	2,085	365	9,128		0	0	877	18,872

79년도 인수 인계가 지난 2월 12일에 끝났습니다.

79년도 총수입금이 \$45,412.73 이고 지출액이

\$43,720.80 으로 잔액 \$1,691.93 이중 광고 주 소 주 선불금이 \$1,340.00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0년도에 우리 한인회에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본다면 12월 31일자

은행 이월금 \$1,670.10 (인수인계서 이월금과 12월 80년 79년 광고료 \$500.00) (선부 차오금은 은행 과금)
주 소 주 발간 광고료 선불금 \$1,340.00
79년 미지불금 \$168.00 CHARGE 토 간주함.)
순 이월금 \$671.00

건축 기금중 BOND 는 2장을 1978년 당시에 Rainier Bank 로 샀는것으로 1장은 1978년 6월 4일자로 원금 \$5,075.44 로 되어있고 또 한장은 1978년 4월 14일자로 원금 \$3,460.00로 되어 있으며 1979년 12월 31일 현재 약 2년 동안 이자가 \$500.00 정도 붙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면 약 5% 정도 입니다. 좀더 영리한 의견을 고민 어머분들과 논의로져 하읍니다. 우리 건 고민의 재산이요 우리의 회관을 설립케 위한 목적이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80년도는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의 핵로서 그의 대채중 하나인 사업으로 지역별 한인회 영업소에 모금함을 설치하였으니 고민 어머분의 고통편의와 시간 절약의 일환책으로써 지역별 모금함이 설치된곳에 각종 기금함을 이용 해주시면 수시로 정금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적극 적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금함 옆에는 이용 하실 봉투함이 봉투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인회를 위한 고민 어머분의 좋은 아이디어와 충고등을 적어 넣어 주셔도 됩니다. 항상 개정하고 반성하여 발전을 갖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금함 설치 장소는 그랜드 식품. 오대양 식품. 동양식품. 중앙상회. 한국 식당.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헌납해주신 모든 기금에 관한 영수증을 일괄 소급해서(80년 1월 1일부터) 3월호로 이전 과 가격에 보내 드릴 겠읍니다. 이 영수증은 연말 인콰먼트에 공제 받을수 있사오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기
무관심의 집시속에서도 옥필을 보내주신 어머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익일 발전하는 씨애틀을 위한 한인회의 대회의 광장을 마련한 이 자리에 계속 아픈 재직을 기다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회장님이나 전 임원 그리고 편집을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봉사부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편집부



한글 학교 학생 모집

입학원서

이름	한글		사
	영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한글		전화
	성명	영문	직업
학생의 특기 취미			
기타 요망 사항			

위와 같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시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월 일
보호자 _____

씨애틀 한인 학교 귀하



단 소정의 금액은 씨애틀 한인회에 특별(교육) 기부금으로 으로 취급 영수되며 어머분의 인콰먼트에 공제됨



- 본교의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는 기반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국인을 육성하여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여 조국을 건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본교의 교육 목적**
애국 애족의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이 기여 할수 있는 긍지 높은 한국인을 육성한다.
- 본교를 수료하면**
 - 이중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여 높은 사고력을 갖는다.
 - 가족과 대화가 넓어지고 부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우리가 훌륭한 문화민족임을 자부하게 되어 업등 의식을 얻는다.
- 학생 모집 내용**
 - 모집대상 : 유치반 및 국민학교 전 학년.
 -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 등록일시 : 2월 1일 - 2월 7일 (오전 9:00-오후 4:30)
 - 등록장소 : 한인회 사무실
 - 교과과목 : 국어, 음악, 역사, 태권도.
 - 등록금 : 가. 한기정 1인 학생 \$25.00
나. 한기정 2인 학생 \$35.00
다. 한기정 3인 이상 학생 \$40.00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9:00-12:30
 - 학교위치 : 미정
 - 기타 : 본교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한인회 사무실 (767-7934, 7935)이나 한인회 회장단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244-8449, 763-9190)

1980년 1월 30일 씨애틀 한인회장 정철식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

그간 한인회에서는 회관 건립문제와 한인사회 제반 문제점을 놓고 숙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 여러분의 고견에도 귀 기울여 왔습니다만 회장단과 임원진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제외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회에서는 현재 \$9,035.00의 회관 건립기금을 사장액돈체 4,5년을 역속 세월매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사회 숙원의 사업인 회관 건립을 위해 단돈 2분씩으로 전원이 참여한다면 2만 고포라는 씨앗이라도 자랑스런 회관을 마련할일이 멀지않은 데 이것을 저희 몇몇 한인의 허황한 꿈으로만 일컬지 마시고 전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임원진에서는 요즘들 때 정부 접촉에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다른아니라 그들은 한인 개인의 우수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어떤 형태의 결합된 힘 내지 활동상황을 제시하길 요구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우리 한인사회는 제시 할만한 자료를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 민족그룹인 중국, 일본, 필리핀계 심지어는 월남계의 소수민족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으나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한인사회는 소외당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에게 한인회장이나 임원 몇몇 사람이 입으로만 아우성쳐 봤자 별무 효과입니다. 길이 있다면 단한가지 회관 건립입니다. 조그마한 회관이라도 마련해 놓고 그 회관내에 한글 학교도 두고 저소득층

기술 교육도, 직업 압선도, 회합도 갖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길만이 우리 한인의 현실을 인식시키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최대대표로서 한인회관 건립 운동을 내 세웠습니다. 이 운동은 어느 특정인적 명이나 영달을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 전체를 위한 길이며 뜻인 것입니다. 방법론에 입각하여 여러 고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관 건립위원회를

따로 재 구성하는 것과 현 한인회내의 "회관 건립부"를 활용하여 이사 임원 건원이 전력 투구 하나에 있습니다. 전자는 고액 출연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었으나 이미 우리 자신이 4년전에 경험했던 사건과 같이 현재 Chicago, L.A. 등지의 한인회와 회관건립위원회 사이의 압력등을 감안해야겠고 후자는 한인회의 각종 행사와 한인회보를 통한 계몽 내지 선전으로

고민전체의 소액 출연부 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회관 건립문제와 한인사회 제반 관심사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민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여겨 다음과 같은 "실문"을 받기르 했습니다. 3월 31일을 전후 마감일로 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르시 행하기로 했으니 부디 한번 빠짐없이 고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한인 회장 정철식

실문

문: 회관 건립을 위해 한인회 임원진내의 회관 건립부를 활용 또는 회관건립위원회를 재 구성하는데 대한 귀하의 견해는 ?

답:

문: 한인회관건립의 필요성 또는 모금 방법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답:

문: 회관을 건립할 자금이 충분할때 위치는 한인집지역 또는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는데 대한 귀하의 견해는 ?

답:

문: 현 한인회의 제반 활동상황에 대한 귀하의 평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길 귀하는 원하시는지요 ?

답:

문: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금 조달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답:

상부성에 있는 인구 조사국에서 과 가정으로 유인물이 올것입니다. 이것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기록을 해서 4월 1일 까지 회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가끔 한국 정부니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참여를 안할 경우 자연 한인 정부니미가 받는 모든 혜택이 없어질 것입니다. (절대 기밀이 보장되니 자기 비사 문제 개인 소득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인회 소식



지난 1월 30일 주 정부에서 온 한 서신은 80년도 C.B.T.A. 예산이 55% 축소되는 바람에 C.B.T.A.은 영자금으로 지원을 고용하고있는 40여 비영리 단체의 공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결과 한인 봉사 센터도 현재 3명중 2명의 보직이 축소되는 결과를 겪어오게 되었다. 2명 공원 대상자는 3월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1명이 한인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1979년말 전 회장인 조성욱씨께서 동부 서주 심혈을 기울리셨던 한인 주소득이 완성 단계에서 출판의 빛을 못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새 임원진과 봉사요원의 재삼 검토하여 오는 3월 말일경 발간 예정임을 알립니다.

한글판 와싱면주 운전전자 개정판이 와싱면 대학 방 건물 씨에 의해 번역되어 오는 2월 말일 주 정부도 우송, 주 정부에서는 수정본을 발간과 시정장에 배부할것입니다.

지난 1월 26일 신임 회장단의 총영사관 예방에 대한 답방으로 씨애틀 총영사관의 박 남 군 영사께서 본 한인회를 예방하여 회장단 및 임원 그리고 전 이사 참석하여 한인회의 발전에 따른 총영사관측 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짐하며 기한 없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인회 산하 한글 학교 개강에 즈음하여 학교 장소 문제로 고심중 에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추후 발표가 있겠습니다. 80년도 한글학교의 고장에는 교육청에 계시는 배경숙씨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80년도 한인회를 이끌어 갈 회장 및 임원진들은 시간의 제약속에서도 한인회의 발전 향상을 위해 고심분투 사명감에 온심신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인회는 무한한 발전이 약속되리라 봅니다. 고포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80년 2월 17일 King County Council Woman Mrs. Ruby Chow 토 부어 Governor DEXY LEE RAY 가 참석하는 구정 RECEPTION 에 본 한인회 회장인 신정철씨께서 초대를 받았읍니다. 장소는 RUBY CHOW'S RESTAURANT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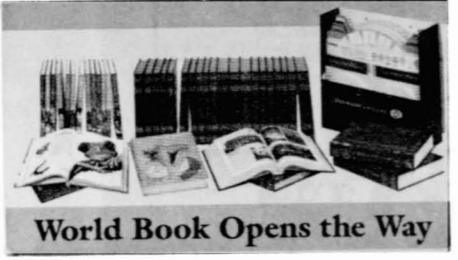
지난 2월 16일에 있었던 김 중구씨와 이규영씨의 인발팩스 보고 요령 및 소기업 경영자의 세대에 대한 고양광과는 관심있는 고포분들의 집의 답변으로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며 내년에는 좀 더 입체고 심심한 강의를 약속하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6시에 한국 예술 협회 회장 박 암 씨댁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대한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와싱면주 내에 거주하고있는 고포로서 R.O.T.C 출신들의 모임은 3월중에 광고적하오나 R.O.T.C 출신은 빠짐없이 아택 전화로 연락 바람 362-6255, 824-7309

사람을 찾읍니다 부모님은 뉴욕에 계시고 네브라스카주 오키마에 잠깐 사시던 김화영(학생) 씨를 한인회 편집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한글 학교에 유능한 선생님을 초빙 합니다.
1. 자격 1. 교사 자격증을 갖으신 분이나 교육학을 이수하신분. 2. 국어,음악,역사,백과도 등 전공하신분. 3. 고포 이세 교육에 관심이 많은분.
 2. 근무시간 매주 토요일 8:30-12:30
 3. 매우 후사 하겠음
 4. 문의처 한인회 사무실이나 한인회 회장에게 본인 직접 연락 바람
한인회 사무실 (767-7934, 7935)
회장 (자택 244-8449, 사무실-763-9190)



World Book Opens the Way

우리 한인사회에 새로운 최소의 千萬金 보다 저렴한 자녀 교육 (206) 762-2265 김 재 영

WORLD BOOK ENCYCLOPEDIA를 3월15일 까지 \$100 할인 해서(449분:종전가격) 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SALE 가격:339분 9437-10th AVE S.W SEATTLE, WA 98106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는



이동권 보험

LICENSED SPECIAL AGENT.

내일의 사업 또는
오늘의 사업확장.
자녀를 위한 교육.
주거구입을 위한
금융관계.
직장퇴직과 생활보장.
등 각종보험 상담.



사무실 안내

씨애틀 : 622-8966

캔트 : 854-3500

타코마 : 924-0350

자택 : 473-0425(타코마)



김복공소

신·중축 또는 계속공사, 지붕수리공사
마이부 콩크리트동
모마이카 특별 염가봉사
카펫트 무료 견적

본인은 한국과 미국에서 20년의 건축공사
경험이 있으며 본 김복공소의 특징은 고품
질에는 부조금 특별한 가격 봉사하겠습니다.

주소: 3825 197 St SE S.W. Lynnwood Wa 98036

전화: 776-8019 (낮-밤)

763-9190 (낮)

부동산

주택 · 상업 · 토지



노순영

SOON Y. ROW
REALTORS - DEVELOPERS

사무실: 763-0341-775-1936 집: 774-7977

투자 상담

주택 신축 · 개축 · 토지 개발

각종 사업 투자

싱가 감정 · 융자 알선

헨리장 여행사

모국 방문

특별 염가봉사

국내외

항공권 판매

가족초청 및 제반

여행수속 대행

국내 여행 안내

이민 상담

재정 보증서 작성

공공 업무.

Tel. (206) 523-7057

523-2781

교육청에서 본

이중 언어 현행 실태

백경숙

대망의 80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역전을 닦으시라 주야로
고심하시는 어머 학부모님들 앞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
하오며 그동안 어머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저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한지도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이 지면을 통해 새로 미국에 이주해 오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한번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실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적인 배경이나 관습, 전통 또는 다른면에서 한국과 완전히 다른
미국사회에 들어온 우리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급급히
판단도 하기전에 무조건 미국 사회의 모든 생활 방법을 받아들여려고
애쓰기 쉽습니다. 이럴때 생기는 정신적인 충격이 교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줍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적응하려고 괴로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교육과 병행하여 미국 정규교육의 이점을
바르게 할수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못하거나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수업
도해주며 언어장애 때문에 학업이 뒤떨어지는 것을 막아 보다는
교육효과를 거두게하는 교육방법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의
문화및 관습을 일깨워주고 그들 정신세계에 밑바탕이 되는 문화적
배경을 알게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민족적인
긍지를 지니 미국내에서의 소수 민족이 갖기 쉬운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제거해 줍니다.

대상 학생들은 거의가 이민온지 1-2년 안팎의 학생들이며 언어 사용
능력이 A 와 B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아래표 참조)

학생들은 매일 30분-60분 정도의 지도를 받고 하루입과중 그 나머지
시간들은 영어로 강의되는 정규 학교 수업에 참석 합니다.

매일 30분-60분 정도의 시간에 이중 언어 고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수학, 사회, 과학, 보건)을 영어와 한국어 함께
사용하며 지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움과 동시에 이와같은 중요한 과목들의 이해및합점등을 계속 공부
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영어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곧 정규 클래스로 이전 됩니다.

대체로 언어 사용능력 수준을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 합니다.

카테고리 A ... 항상 한국어만 사용함.

" B 거의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영어도 다소 사용함.

" C 한국어와 영어를 비슷하게 잡함.

" D 거의 영어만 사용하나 한국어도 다소 사용함.

" E 항상 영어만 사용함.

1980년 7월 현재 A 와 B 그룹에 속하는 한국 학생들 수는 173명이고

CDE 그룹에 속하는 한국 학생들수는 225명 입니다.

또한 작년의 이중언어 교육의 혜택을 받은 학생 총수는 382명이었습니다.
특히 CDE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한국교육문화 및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시간 및 한국 교육 문화 교육이 약 1주일에
1시간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두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권
에서 오는 갈등과 고충을 없애며 영어와 자기의 모국어를 동시에 구사
할수 있는 바람직한 자녀 교육 양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 고사가 있는 학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Cooper Elem.	Lake City Elem.
Samislo Elem.	Oak Lake Elem.
Lowell Elem.	Boren Jr. High Elem
Adams Jr.High.	Sealth High Elem
Ingrahm High.	Roosevelt high
Nathan Hale High	

현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을 보면 위에 언급한 과 학교들의 한국인
교사들의 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씨애틀 지구내 미국인 교사
들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한 고사 교육, 고재
작성, 출판, 학교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무처리에서 학부모들의 봉위
이나 기타 편의 제공, 학생들의 전담문제 기타 일반 상담 문제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씨애틀 교육청 근무



위 사진은 백경숙씨

"내 고향"
옛날은 내가 살던 내 고향

지금은 꿈에 보는 내 고향

삼기에 어떠한 생각이타고

마음을 이렇게 먹어 야지

내가 두고온 행복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



입선고사가본

이중 언어 교육의 이해

오 원 본

세계를 공립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이 시행되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프로그램 자체의 여러 변화와 발전을 돌아다 볼 때 입선에서 입한 사람의 하나로 큰 보람을 느끼며 되어서 후원과 큰 배움을 베풀어 주신 학부모님들, 사회유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책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은것같아 지면을 빌려 잠깐 소개를 드리고 합니다. 현재 세계를 공립 학교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필수 교육과목을 영어와 본국어로 동시에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한 본국 문화, 언어 수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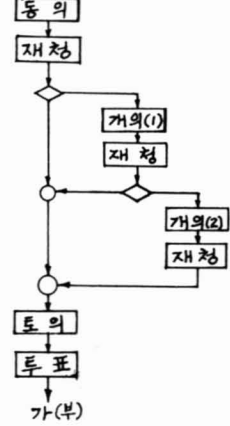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지를 열거해 보면 자기 인식과 존중, 선입관이나 편견을 떠난 학인에 대한 존경심(특히 혼합 민족이 사는 미국 사회에서) 본국어와 새 언어에 대한 동시 학습과 향상, 학과 수업에 대비한 연습과 모호지도,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또한 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 이중 언어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많이 보이게 되면 영어를 익히는데 많은 지장이 생길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 데 이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실재 그들 학교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 교사와 미국 학생들과 보내게 되어 있으며 짧은 쉬는 시간과 하루 30분 정도의 수업만을 한국 교사에게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입선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 생활 1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언어가 영어로 바뀌어 가는 반면 한국어를 잊어가는 현상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으뭇한 것은 그들이 이 수업을 즐겨 받으며 한국인이란 데 대한 자부심과 공동 의식마저 느끼고 미국 학생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의욕으로 열심히 학습하여 미국 전체 학생들에게 본이되고 또한 미국 교사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어머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의문 사항이나 학생 지도에 대한 애로점들을 저희 교사들과 항상 의논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많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니슬토 국민학교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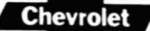
권급 동의

전 계상

회의 도중에 갑자기 "권급 동의요" 하고 손을 높이들며 외치는것을 본인이 여러번 있던것을 기억합니다. 회의되고있는 안건이 자기맡에 언뜻하니까 중지하고 편입을 토의하자는것이든지 혹은 토의할 예정으로 내세운 안건들 보다 더 훨씬 "권급"한 토의 사항이 있으니까 예정안건을 다 제치고 자기가 내세우는 사항을 토의하자는 의미 이였습니다. 회진행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사람 이라면 한 동의를 토의되고 있을때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안건의토 그것을 중지시키면되지 또는 예정된 안건의외 안건을 갑자기 제기 한다는것은 불법이라는것을 잘 압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서는 학생이나 신입거나 심지어는 교역자 까지도 회의 진행을 법에 의해서 시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본인이 드문것 같습니다. 한국이 핵방항후 민주주의를 실행한지 삼십년이 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봐 이해하기 힘든일이파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처음에 인상깊게 느낀것의 한가지가 미국사람들의 원활한 단체활동이었고 또 한국에서는 회의 진행법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까닭으로 저는 회의 진행법에 관한 책도 읽고 또 그 법을 가르치는 회 예도 가입하여 배워 보기도 하였습니다. 배우고 보니까 단체의 원활한 활동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요 또한 강한 정부의 기초 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법을 완전히 습득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에는 흔히 이것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회원을 두고 회의 진행에 의문이 있을때에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사람으로는 그 법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만을 잡아두던지 혹은 그 법을 간략히 쓴 책을 곁에 두고 필요한 때에 참고하며 회를 진행하면 회의 진행은 꽤 손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법에 가장 기초되는것은 동의를 다루는 방법 이파 할수 있습니다. 동의를 어떻게 다루나 간단히 적어볼까 합니다. 동의에는 여러 계급이 있지만은 보통의 동의에는 "재청"이 있어야 회의서 채택이 되어 토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동의를 다루는 방법을 약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넬슨·시보레 자동차



NELSON CHEVROLET CO., INC.

1521 N. W. 50TH • SEATTLE, WASHINGTON 98107 • 784-9400

2월중 인기 자동차 소개

• 거의 영업 소신:

1. 차를 사실때 고가의 편에서 서서 서로 신뢰할수 있는 성실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2.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흥정에 입하겠습니다.
3. 새차나 중고차들 500-1000불 다운(선금)으로 사실수 있도록 나머지 잔액은 본회사에서 용자 해 드리겠습니다.
4. 은행을 차를 원치 않거나 선금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한달에 114불만 내시면 새차들 3년간 빌려 갈수있게 해드리겠습니다.(기름주게드는 80년도 쉐벳의 경우)
5. 사업하시는분은 차를 사시는것보다 빌리는것 (Lease)이 훨씬 경제적입니다.(매월 내신 일부금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있기때문)
6. 차를 사신후 새차는 물론 중고차도 1년간 보증 (Warranty)을 받으며 철저히 고장수리 (After Service)를 해드리겠습니다.



1980 Chevrolet Chevette Hatchback Sedan
4기통, 엔진98, 자동/수동,
시내:26, 하이웨이:36마일(가동당)



VANS. 6/8기통, 엔진250-305, 자동, 파워 부레이크
79년도 벤추르 제고정리 3,000불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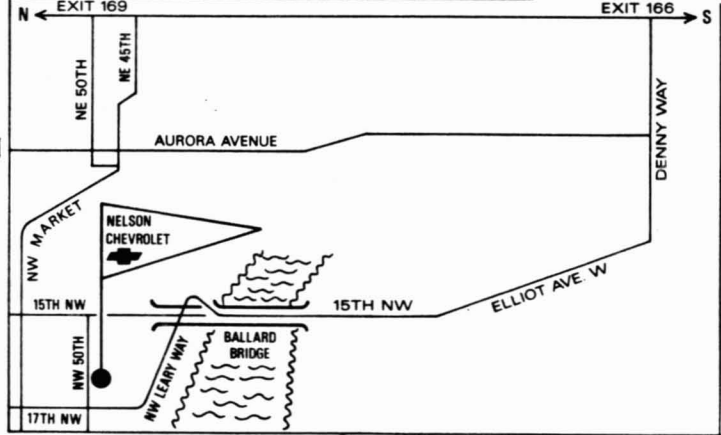


PICKUPS. 6/8기통, 엔진250-350, 자동/수동
파워부레이크, 파워스티어링, 격계량:
3,000-4,500파운드



필자 경력:

- 남가주 대학(USC)수업
- 템플대학 경영학 수업
- 미해병장교 초급반수업
- 미육군 행정학교수석졸
- 주워 미육군 24군단-연락장교
- Vista 자동차 근무
- Ford 자동차 근무
- Nelson 시보레 근무



영업 시간:
월-토(오전9시-오후8시)
전화: 784-9400 (서맥들)
김영일 배상

동의를 제청을 거쳐서 토의를 한 다음 투표로 들어가 가.부를 결정하는
 짧은 길도 있지만 그 외에 두 번의 "개외"를 거치는 수도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외는 동의와 마찬가지로 제청이 필요 합니다.
 개외가 있을 때에는 토의와 투표는 개외(2)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고
 다음에 개외(1)에 대해서 하고 제일끝에 동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개외는 동의에 관련된 사항
 이 아닌 채택한다는 것과 (2) 의장은 항상 회원 투표로 들어갈 때 췌에 대해
 서 가.부를 묻는 것이 확실이 압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인사회 여러분이 명심하여 할 회의 진행법의 한 가지는
 "불심입 투표"의 사용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도 씨애틀 한인교포사회
 에서 가끔 대두되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의도는
 현 임원들 하는 것이 자기 맘에 편편이니까 갈아치우자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불심입 투표" 대신에 "소환(Recall)"이라는 법을 쓰는
 수가 많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어느 쪽을 쓰던간에 이 법을
 사용하려면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발표해야
 그 법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으로 당선한 사람은 그 전에
 여러 사람의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신중한 순서를 밟아
 유입, 퇴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에서이고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은
 넓게 광고하여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곳에서 하는 이치에서
 인 것입니다. 위에 적은 것을 보시면은 "긴급 동의요" 회장단 불심입을
 동의 합니다" 하고 회중간에 의치는 것은 불합에 불합을 거듭한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긴급히 동의"로 자 하는 것은
 씨애틀 우리 한인사회 여러분이 하루속히 회의 진행법을 습득 하셔서
 여러 사업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다루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인 회비 납부자 명단

- 박 춘환 \$75.00
- 윤 병섭 \$75.00
- 김 동운 \$75.00
- 김 지창 \$75.00
- 최 안양 \$20.00
- 김 철우 \$70.00
- 안 기현 \$70.00
- 이 종완 \$75.00

지난달 회비내신 조찬영씨 심함을
 조 차영 씨로 정정 합니다.

한인 회관 건립기금내신 윤 병서씨
 심함을 윤 병섭씨로 정정 합니다.

회화 배우실분을 모집 합니다.
 새로 이민 오신분이나 회화에 애를 느끼시는 분은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강사는 미국본으로 시간은 저녁 7시-9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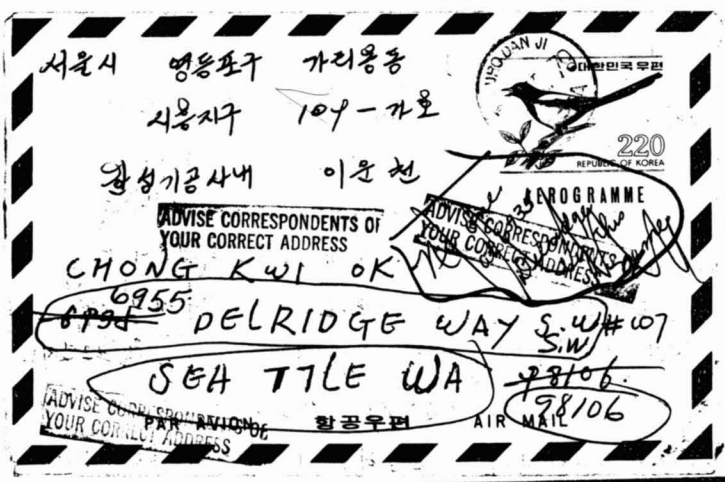
"구정맞이 거북선의 밤"

워싱턴주 한인 기능사 협회(회장 송 기만)에서 구정맞이
 "거북선의 밤"을 King Count White Center Park(Field House)
 에서 회원 가족등 고된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정창근 단장의
 흥겨운 연주와 재미 정미의 대륙의 노랫가 흥을 한층 돋구었으며
 장수무태와 회원 노랫자랑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종 즐거운
 잔치를 성황리에 치루고 금년도 회장등 임원들은 기능사 협회의
 면도 색신을 타집하면서 한인회관 건립등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것을 재삼 천명했다.

거북선의 밤행사 찬조자 명단

- 델리도 (대표 신일수) 19인치 텔레비존 1대
- | | | | |
|----------|---------------|-------------|----------|
| 아줌마 마켓 | 백미 100 파운드 | 마로마 우정회 | \$50.00 |
| 현대 식품점 | \$200.00 | 영 율딩 학교 | \$50.00 |
| 한국 식당 | 백미 200 파운드 | 김 종구 회계사 | \$100.00 |
| 타이마운전학교 | " 50 파운드 | 해병 동지회 | \$100.00 |
| 한국 식품 | " 100 파운드 | 헨리장 여행사 | \$50.00 |
| 중앙 식품 | 전기 장판 1개 | 이 규영 회계사 | \$100.00 |
| 오 대양 | 라면 5 박스 | 기능사 협회장 떡 | 160파운드 |
| 그랜드 식품 | 쟁반 2개, 탁면 2박스 | 김 손 옥 | \$30.00 |
| 오 경화 | \$100.00 | 조 기 두 | \$20.00 |
| 마로마 한인회 | \$100.00 | 장 부 관 | \$20.00 |
| 한국 여행사 | \$50.00 | 윤 손 옥 | \$20.00 |
| 충 영사관 | \$200.00 | 김 현 중 (부동산) | \$50.00 |
| 이 영주 치과 | \$700.00 | 김 박 속 | \$20.00 |
| 씨애틀 한인회 | \$100.00 | 김 학 남 | \$100.00 |
| 김철준 (보험) | \$50.00 | | |
| 7대양 주점 | \$100.00 | | |
| 이 종 만 | \$50.00 | | |

박사. 보잉에서 근무



엽서 주인을 찾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위의 엽서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중이오니 정 귀속 씨나 이분을 아시는
 분은 본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주 총영사관 한인회 회장단및 임원 초대

입시 : 1980년 2월 2일 6시 30분 - 9시까지 (2시간 30분)

장소 : 연경 반점

참석자 : 총영사 박영사 안영사 이영사

정회장 노부회장 양부회장및 10부 전임원

내용 :

- 총영사: 1. 취임 이후 각 지역 한인회 방문으로 통한 각 지역 한인회의 발전사항 등을 소개 하시고 특히 포틀랜드 한인회와 밴쿠버 한인회의 자체 운영면을 설명하시며 씨애틀와 워싱턴주 한인회의 새 회장및 임원진을 격려함.
2. 새 회장단및 임원진은 이제까지 선배들이 키워온 한인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단합하여 개개인의 투철한 민족관으로서 개인 생업의 발전과 한인회 사업이 병합되어, 특히 2세들의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어 한국인의 긍지로서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금까지의 우리 전 고포의 소원과 바람인, 한인회관 건립을 이번 새 회장단과 임원진에게 부탁함.

정회장 인사:

박부신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인회와 고포들을 위하여 도와주시며 격려해주신 총영사님을 비롯 총영사관 전 직원에게 전 고포를 대신하여 감사 드리며 끝없는 상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노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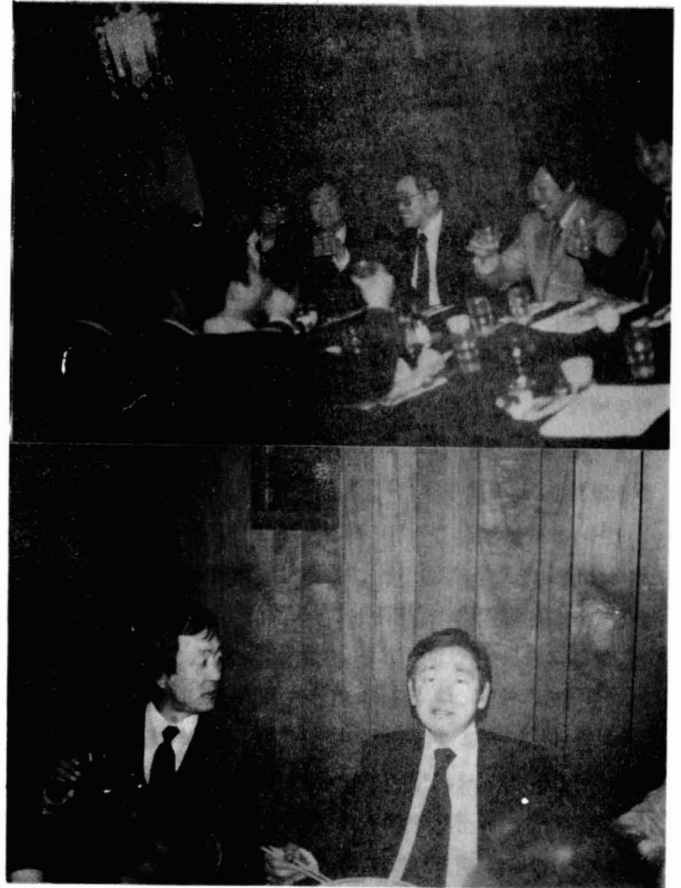
지역 고포들에게 조국의 상징인 백극기를 매매하여, 한인 회관 건립 기금 조달 방법으로 구체화하며 조국의 상징을 과 개인 가정마다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은 조국애를 심어보자.

기바:

김교육부장과 총영사께서는 한글학교의 구체안과 개량안을 토의하며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2세 교육을 위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함.

기바:

총영사관 직원과 회장단및 임원진은 고포들의 상호 이익과 친선을 위한 의견을 2시간 30분동안 광범위하게 의견을 서로 나눔.



이 국 방

백 영 숙

백풍 처럼 왔다가
머물르고 있는 곳

때를 쓰고 기를 써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아픈 다리를 집집 끌고

내일을 산다는 꽃바람 속에서
파란향기, 노란향기를
뿌린다

행어 잡힐까 긴목을 배어
하늘을 휘젓는데

잔잔한 벌 조각들이
무수히 내뿜잖아

엄마품으로 함께 날라 간다.